

멜버른, 도시공간에서 개인형 공유모빌리티의 안전성 강화

<https://news.melbourne.vic.gov.au/media-releases/boosting-e-scooter-safety-for-all-melburnians/>



멜버른시에 공유 전동킵보드가 주차된 모습
출처: <https://www.shutterstock.com/ko/image-photo/melbourne-australia-november-20-2022-shared-2281810191>

호주 멜버른시가 도시공간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공유모빌리티에 새로운 기술을 탑재하는 시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.

우선 출시된 25대의 전동킵보드는 실시간 감지 기능과 오디오 경보를 통해 킵보드가 보행로를 달리는 행위, 킵보드를 2인 이상이 이용하는 탠덤 라이딩(tandem riding)을 단속한다. 킵보드의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안내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. 현재 인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라이더를 지정된 주차구역으로 안내하는 시범사업이 몇몇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,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전동킵보드 관련 불만사항이 55% 감소하였다. 또한 시의회는 보행로 위 전동킵보드 대여·반납 구역을 명확히 표시하는 작업을 위해 현재 주차구역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. 이 외에도 시는 라이더 신원(나이)이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도입할 계획이다.

멜버른시가 개발 중인 기술과 활용 방안

- 인공 지능 시스템: 라이더가 올바르게 주차하지 않고 여행을 종료하는 것을 방지
- 알코올 감지 및 억제 시스템: 음주운전 방지
- 라이더 신원 확인 시스템: 미성년자 탑승 확인 및 금지
- 듀얼 밴드 GPS 및 블루투스 기술: 전동킵보드의 위치, 지오펜싱(geofencing) 및 지정 주차구역 확인 정확도 향상
- 지도시스템 탑재: GPS 포지셔닝 의존도 감소

멜버른시는 빅토리아주와 협력하여 공유 전동킵보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.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00만 회 이상 시민들이 전동킵보드를 이용하였으며, 이는 하루 평균 6,000회에 달하는 횟수이다. 또한 사업 이후 도시의 탄소 배출량이 400톤 이상 감소하였고, 이용자의 40%가 기차·트램·버스 이용을 위한 연결 이동수단으로 킵보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유 전동킵보드 도입의 효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. 이번 기술 도입 또한 주정부와 협력하는 사업으로, 멜버른시는 공유 개인형 모빌리티가 도시공간에 안전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